

- 初層屋身高 五九 龕室 二六×一八
- 幅 六七 深 三三
- 三層屋身高 一一二 四層屋身高 一〇・五
- 幅 五五・五 幅 四七
- 初層屋蓋長 一一〇 二層屋蓋長 一〇〇・五
- 厚 四五 厚 四一・五
- 三層屋蓋長 八〇 四層長 七〇 五層長 五九
- 厚 三六 厚 三〇 厚 二四
- 擦柱孔徑 六九이다.

二、其他 遺蹟

前述한 石塔의 位置는 一帶가 耕作地로 變해졌는데 現在도 瓦片이 散亂하여 寺址임을 곧 알 수 있다. 筆者가 調査時 前記 安先生이 蒐集했다고 하는 平瓦片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天寺」라는 左書銘이 있어 「天寺」의 한쪽임으로 앞으로 이 곳의 寺名이 確認될 可能이 있게 되었다. 이 외에 蒐集品인 莫斯瓦로 調査했으나 모두 高麗代로 推定되었다. 한편 이 耕作地에서 西北쪽으로 約二百m 되는 곳의 學校에서는 石塔屋蓋石二枚를 調査하였는데 一枚는 現在 民家の 柱礎石으로 使用되었고 他一枚는 後庭石築材로 使用되어 있었다. 前者는 屋蓋받침이 四段이고 上面屋身받침은 角形二段이며 後者는 屋蓋받침 四段임이 確認되었다. 이 石塔材가 이 곳이 原位置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寺址↓耕作地) 移搬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前述한 秀峯國民學校內의 石塔以外에 다른 또 하나의 石塔이 있었던 것만은 推定할 수 있다. 바라전대 現耕作地를 發掘할 機會를 마련하여 寺名도 밝히고 다른 諸部材도 收拾했으면 한다. 實測値는(cm)

〔其一〕 蓋部 一〇四 厚 三九  
 〔其二〕 屋蓋받침長(下部부터) 五三・五, 六〇, 六七, 七三이다.

① 檀國大 忠北槐山地區古蹟調査——本誌 第八卷 第九號 通卷第八六一—八欄 參照

② 八五頁末項에 「陰城郡校田、陰城邑ノ東方約五町ノ 田中ニ 在リ寺址ハ 田ニ 變シ 高サ 十二尺ノ 六重ノ 石塔アリ 蓮紋ヲ 刻シ 彫刻

第八卷 第十一號 通卷八十八號

精巧ヲ 極ム라 있다.

③ 塔塔을 模倣한 諸石塔에서는 轉角의 反轉이 없다——그 類例는 慶州西岳里三層石塔、義城邑五層石塔、義城冰山寺址五層石塔、慶州南山里三層石塔 等이라 하겠다.

④ 現今까지에 調査된 石塔은 模倣石塔以外는 모두 新羅代의 建立으로 推定되고 있다(國寶圖錄第五輯 石塔篇 參照).

泗川 土城 調査略記

金 相 朝

지난 여름 早災가 極甚할 때 被害狀況과 揚水作業 激勸慰勞次 郡內一圓을 돌고 正東面에서 泗南面으로 徒步로 尼丘山麓의 중허리를 넘어가는데 멀리 않는 南쪽 山허리에 土城址가 있음을 發見하고 저것이 東國輿地覽勝과 泗川邑誌에 나오는 城隍山城이고 하나 하는 것을 直感的으로 느꼈다. 이때는 눈코 뜰새이 없는 때이라 餘暇가 나는 대로 調査하여 보리라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지난 十月十五日 日曜日의 休일을 틈타 同好人 金性澤 金德致 鄭東柱 河珣植 諸氏와 同行 邑內에서 二km 許에 있는 禮樹里의 마을 앞 들밭을 가로질러 흙가분한 登山차림으로 一〇九高地인 이 城隍堂山(五萬分之 一地圖上의 名稱)을 向해 기어 올랐다. 城中央에서 四方을 살펴보니 東西南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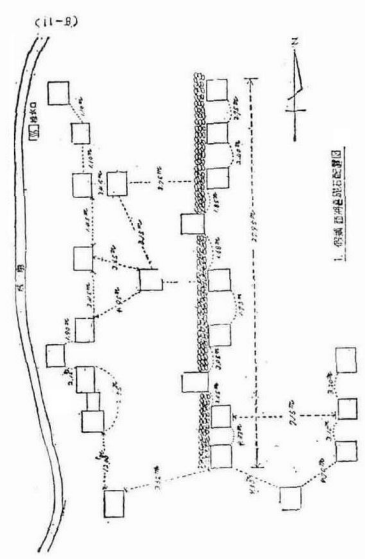


圖1. 假稱 西將臺礎石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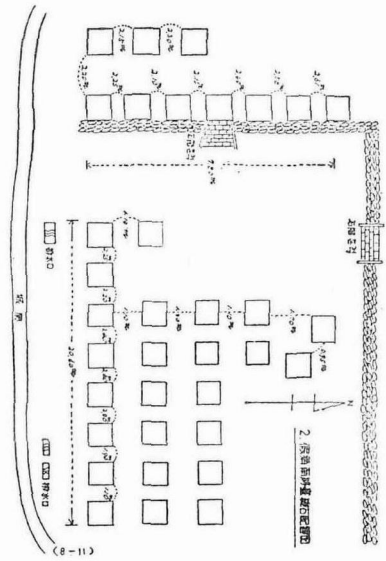


圖2. 假稱南將臺礎石配置圖

川灣 廣浦가 한눈안에 담아 볼 수 있는 곳이다. 天然의 要塞地를 選擇하여 築城한 先民들의 叡知에 한 번 더 감탄했다.

東國輿地勝覽 泗川邑誌의 城廓條에 보면 모두 泗川邑城의 石築을래는 五千十五尺이며 높이는 十五尺이라고 記錄되어 있을 뿐이고 다만 古蹟條에 보면 城隍山城을래는 一千九百四十一尺이요 勝覽에는 城內 二池一井이라고 했고 邑誌에는 一池一泉으로 되어 있으니 調査한 바 邑誌記錄이 맞다고 하겠다. 그리고 近年에 調査發刊된 朴敬遠著(慶南高校長)『慶南의 古蹟과 그 文化』라는 冊子에도 이 城隍山城은 脫落되어 있다. 그럼으로 因해 살펴 보건대 이 미이 城은 李朝에 접어들어 들면서 廢城된 것이 確實하다 하겠다. 이 날 同行한 諸氏는 말하기를 小學校在學時 道風을 왔을 때 先生이나 村老들에게 듣기를 設喪堂(城隍堂) 鬼神을 의셔 놓고 巫堂이 굿이나 하고 祭祀를 지내는 程度이며 다른 口碑나 傳說은 들은바 전혀 없다고 하며 이렇게 極南의 要塞之地를 壬辰·丁酉 兩亂時에는 全然使用되지 않았으며 高麗史를 더듬어 보면 恭愍王九年 正平十五年(西紀一三六〇年) 四月 丙子에 「倭寇泗洲(泗川의 古號)角山」이라 했고 다음해인 恭愍王十年八月癸己에 「倭焚掠東萊 蔚州奪其漕又寇梁州 金海府泗洲 密陽郡」이라 했고 恭愍王十三年西紀一三六四年三月乙亥에 「倭寇固城 泗洲」

의 視界가 특히 八km 以上 있을 내다 볼 수 있고 北쪽은 半絶壁에 가깝고 西쪽으로 몸을 둘러 向하니 壬辰丁酉年의 倭亂의 激戰地 船津山城과 李舜臣提督이 前無後無敗戰을 한 泗

라 했으며 禡王四年西紀一九三八年十二月에 「倭寇河東晉州都巡向使 裴克廉與兵馬使俞益桓攻斬十九級 追夾擊于泗洲斬二級」이라 했다. 또한 禡王五年九月에 「倭寇班城縣登確山頂樹柵自保 禹仁烈朴修敬 吳彥合圍攻克之斬敵之十四級 倭又寇丹溪 居昌 治爐縣至于嘉樹縣現三嘉 都巡向使 金光富與戰敗死 倭又寇 山陰晉州 泗洲 咸陽」이라 했다. 高麗史를 概略 훑어 보아도 이와 같이 倭寇가 尤甚했고 또한 記錄되지 않은 少少한 侵犯도 許多했을 것이니 그때에는 이 城이 이 고을의 命脈을 이어왔다 할 것이다.

泗川의 歷史를 살펴 보면 新羅와 伽倻가 對峙하고 있을 때 浦上人國中의 一國인 史勿國으로서 그當時加倻國의 侵入을 막기 爲해 王子로 하여금 新羅에 援兵을 要請한 바도 있고 뒤에는 新羅에 合國되어 史勿縣이 되었으니 海上의 前哨陣地로서의 活躍도 컸을 것이며 이 城이 말은 바 所任도 大端했을 것이다. 어떻게 되어 廢城이 되어 李朝記錄에는 보이는 바가 없다.

城의 둘레는 一、一〇九m이며 城基礎部分에는 打釘된 아주 적은 四角形石材로서 군데군데 土城을 補修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城形은 比較的 잘 남아 있는 形便이다. 이곳에서 相當數採集된 瓦當紋으로 보아 오래되었다고 推測되며(新羅初期瓦當片이 많음) 그릇 破片은 麗末顔化期의 靑磁片이 보이는 바 李朝初期까지는 城으로서 命脈을 이어온 것으로 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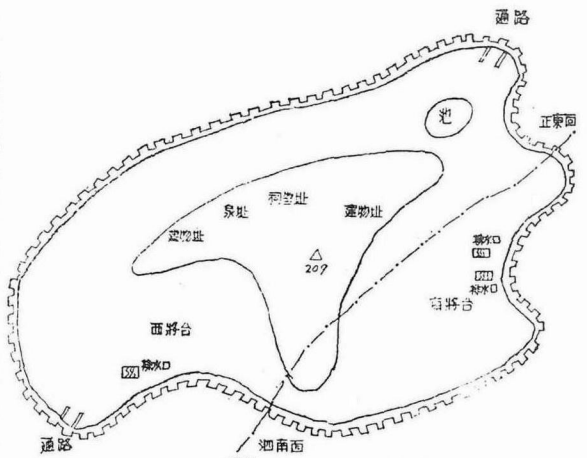


圖3. 城隍山城略圖

된다. 城內에는 西쪽을 向한 西將臺(假稱)址와 南將臺址의 礎石은 比較的 잘 保存되어 있으며 其他 三個處에 建物址가 있으나 城內에 民墓가 投葬되면서부터 礎石을 뽑아다가 墓築臺를 쌓은 關係로 規模를 알길이 莫然하다. 礎石은 全部 自然石으로서 其中에는 直徑 一m 八〇cm의 巨石도 使用되어 있다. 城內에는 十年前까지도 깨끗한 우물이 샘 솟아 數百名の 學生이 道風가서도 充分히 飲料水로 使用되어 왔다고 하나 이제 沒워져서 모두 墓地로 化하고 말았다. 城池는 東西 直徑 二四m 南北 直徑 一三m 로서 規模가 整然하다. 特異한 것은 西·南將臺앞에 排水口가 三個處마련되어 있는데 이 排水口가 바로 城壁으로 빠져흐르는 것이 아니고 現在 남아 있는 城壁의 十餘m 地下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城西側 城壁아래 샘이 하나 있는데 마침 이날 巫堂이 굿을 하고 있기에 물한모듬 얻어 마시고 물의 量을 물으니 今年같은 早魃에도 조금도 줄은 일이 없다고 한다.

이 土城은 새로이 細部的인 調査가 實施되어 保存되어야 할 것을 強調하는 바이다.

資 料

高麗在銘香壇의 新例 二座

黃 壽 永

모두 今年에 出土된 大小 二座인 바 그 中小形一座는 爐身 뿐이다. 모두 無文이나 高麗 立杯形香爐의 通型으로서 오랜 土中으로 靑綠銹가 덮여 있다.

A, 丙戌銘 靑銅小形香壇(現高 九·七cm 上徑 一五·九cm)

臺具를 缺失하고 圓盤만이 남아는데 銘文은 廣緣 裏面에 一行의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다(字徑 二·〇—二·五cm).

丙戌十一月 日碧溪院主勝眞加成

高麗下代 十三世紀作으로 推定될 뿐 碧溪院기타 出土地未詳 梨花

女大博物館所藏(十月 十七日 調査)

B, 戊子銘靑銅香壇(全高 二五·五cm 上徑 二二cm 下徑 一五·二cm)

따로 마련된 身臺가 結構된 通型의 立杯形通式의 香爐인 바 壇體中央에 太細三重帶 一條가 둘러 있는 것은 特色이다. 無文인 바 銘文은 臺具下緣을 돌아서 一行으로 陰刻되었는데 楷書로서 字徑 一·〇cm

戊子二月日 旌施前香壇三都卜十一斤 信懷木

五人次知造納

施納寺院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阿旌施 三尊佛앞에 奉納키 위하여 三座鑄成하였던데 그 都入重量이 十一斤이라 하였다. 江原道出土라고 傳하나 未詳이다. 그리고 이 在銘香壇과 같이 同大의 靑銅圓臺註(高三十八cm 로서 上盤徑 十七cm 下臺徑 十九cm) 三個(그中 一個는 下座破損分離)가 同伴出土되었는데 모두 上盤周緣에 다음과 같은 陰刻된 一行의 銘文이 있어 上記香壇銘과 거의 같으므로 보아 同一人들에 의하여 同時鑄成되어 같은 彌陀앞에 施納된 것이 틀림없다.

戊子二月日 旌施前三內大三信懷木五人次知造納(字徑 〇·五—一·二cm)

(註) 圓形下臺에는 眼象 三이 둘러 있으며 그 위에 相輪型 卒柱가 있고 그 頂上에 圓盤이 얹어져 있다. 佛具의 一種으로 보인다.

報 告

新羅五岳調査(鷄龍山地區第二次)

이번 調査는 麗代의 碑片이 發見되었던 龜龍寺址의 試掘과 百濟瓦片의 蒐集되었던 新元寺의 百濟建物址를 確認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그리하여 龜龍寺址에서는 一部試掘을 通하여 大小 八十餘개의 文字·紋樣碑片과 多量의 無紋碑片을 찾아 내었으며 따라서 碑閣建物址도 밝힐 수 있었다. 碑文은 一三〇字를 완전히 판독할 수 있는데 字體가 前面이 小(七分(二·三cm)後面이 크다는가(九分(三cm)) 歐陽詢筆法의 楷書體等은